

[독일] 2011년 과일, 채소 수확 동향

2011년은 독일 과일 채소 재배 농가에게 예년에 비해 변화가 심했던 기후를 가져온 해로 기억될 전망이다. 따뜻하고 건조했던 1월과 2월, 그리고 가뭄이 이어져 예년보다 더웠던 3월 ~ 5월. 한편 과일 및 채소 수확시기는 예년에 비해 약 10일 ~ 14일 정도 이른 경향을 보였다.

<사과>

2010년 감소했던 사과 수확량은 2011년 예년의 수확량을 회복한, 평균 수확량을 나타낼 전망이다. 올해 사과 수확량은 896,000 톤으로 집계되며 이는 2009년에 비해 7% 상승한 수치이다.

<체리>

2011년 스위트체리(Sweet cherry)는 작년에 비해 약간 상승한 총 3,300 톤의 수확량으로 집계되었다. 신체리(Sour cherry)의 수확량은 2010년 보다 약간 감소한 약 20,000톤으로 예상된다.

<자두, 딸기>

2011년 자두의 수확량은 작년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확 (60,000톤 ~ 70,000톤)을 예상하고 있다. 2010년 이후 자두의 가격 안정 및 소비자로부터의 꾸준한 인기가 2011년 자두의 수확량을 증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.

딸기의 수확량은 2010년 157,000 톤에 비해 2011년 160,000 톤으로 예상된다. 올해 따뜻한 기후가 예년보다 빠른 딸기 수확 시기를 불러왔다.

<야채류>

2011년 야채 시장은 가장 어려운 해로 기록될 전망이다. 독일에서 시작, 전 유럽을 공포로 몰았던 E.coli 바이러스로 인해 야채들의 가격은 급격히 하락, 지금까지도 그 여파가 남아있다. 5월 26일 ~ 6월 10일, 약 4주 간 토마토, 오이, 양배추의 소비는 급격히 감소했으며 현재까지 평년 가격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.

야채 재배 농가의 손실은 약 7천 5백만 유로로 집계되었다.

출처: Freshplaza

Issue date: 2011/09/26